



치통인 줄 알았더니 삼차신경통이래!

얼굴 한쪽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신경외과 도움 필요

60대 이진상 씨(가명)는 치통 때문에 치과를 찾았지만 치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통증은 이따금 생겼기 때문에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음식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심해졌습니다. 뒤늦게 대학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삼차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속이나 얼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

삼차신경이란 얼굴 감각(통각, 온도 등)과 씹는 기능이 연결된 신경을 일컫습니다. 크게 눈·코(광대뼈)·입(턱) 부위 등 세 갈래이며 얼굴의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삼차신경통을 앓았던 사람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얼굴 한쪽을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거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습니다.

삼차신경통은 연간 인구 10만 명당 4.5명꼴로 발생합니다. 흔하지 않은 질병이지만 중년 이후 특히 50대가 전체 환자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여성일 정도로 여성에게 잘 나타납니다. 2017년엔 약 5만 1,000명이 이 질환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삼차신경통 증상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갑작스러운 통증입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입속이나 얼굴의 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로는 얼굴의 한 부위를 만지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생깁니다. 세수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입을 움직일 수가 없어 말하기도, 식사하기도 힘들

니다.

셋째로는 통증이 수초 또는 수분간 이어지다 사라지는데 며칠 또는 몇 주 후 다음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로는 통증이 대부분 얼굴 한쪽에서만 나타납니다. 얼굴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만 나타나며 반대쪽까지 통증이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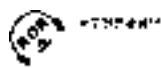
다섯째로 통증은 있지만 감각마비 증상은 없습니다. 얼굴 왼쪽이나 오른쪽에 통증이 아닌 경련이 생기는 것은 반측성 안면경련증 등 다른 질환일 수 있습니다.



얼굴 한쪽에 통증이 생긴다면 삼차신경통 의심

어떤 증상을 느끼면 삼차신경통을 의심해야 할까요? 통증이 입 주변 또는 턱에 생기면 치통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치통인 줄 알고 치과를 찾기 십상입니다. 대개 치아에도 이상이 있으므로 신경치료를 받거나 치아를 뽑기도 합니다.

김진욱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치과에서 치아를 여러 개 뽑은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뒤늦게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도



있습니다. 치아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신경과에 가봐야 합니다. 얼굴 한쪽에 통증이 오면 신경외과를 찾아 검사받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삼차신경통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차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삼차신경통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통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원인 불명의 삼차신경통을 ‘특발성 삼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삼차신경통은 여기에 속합니다.



의학계에서는 통증이 동맥이나 정맥의 삼차신경 압박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 중 하나는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수초가 망가져서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삼차신경통의 5~8%는 특정질환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이차성 삼차신경통’입니다. 여기서 특정질환이란 뇌종양, 뇌동맥류,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병변, 외상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삼차신경

통은 이들 질환에 따라 삼차신경이 손상될 때 생기는 통증입니다. 감염질환도 삼차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삼차신경통이 의심되면 우선 신경과나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치통 등 다른 질환과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통증의 정도 등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는 얼굴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을 찾으려고 합니다. 권도훈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는 “얼굴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목·귀·혀 뒷부분에 통증이 있는 설인신경통, 불특정한 안면 부위에 통증이 있는 비특이성 안면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악관절증·군발성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없는데 삼차신경통이 의심되면 흔히 뇌 MRI(뇌자기공명영상)와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특발성 삼차신경통은 뇌혈관이 삼차신경을 압박하는지를 살펴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약물치료 효과 없을 땐 수술 고려

삼차신경통의 1차 치료는 약물 복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경련제 등을 사용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환자 10명 중 7명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 구역, 설사,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간과 조혈세포 이상이 생길 수 있어 혈액검사를 받으면서 투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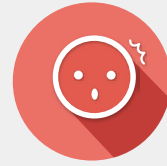
투약기간이 길수록 내성이 생겨 약효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는 8주가량 받습니다. 이 기간에 통증이 사라지면 약물복용 횟수를 서서히 줄입니다. 만일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땐 다른 약으로 바꿉니다. 그럼에도 약물치료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과거에는 알코올이나 페놀을 이용해 신경을 파괴하는 수술법을 이용했지만, 치료 후에 감각 이상 등 합병증이 발생해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최근엔 삼차신경을 누르는 뇌혈관을 분리하는 수술을 시도합니다. 이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두개골을 절개해야 하므로 나이가 많거나 쇠약한 사람에게는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의 의견입니다. 또한 가는 바늘을 삼차신경통 부위에 넣은 후 고주파나 풍선을 이용해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법도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짧고 반복 시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술 후 안면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수술법도 있습니다. 삼차신경통의 방사선치료는 1951년 스웨덴의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인 렉셀이 고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의학기술로는 삼차신경을 정확히 찾기가 힘들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권도훈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는 “MRI나 CT 등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최근엔 삼차신경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또 첨단 뇌수술장비인 감마나이프 이용 경험이 많이 축적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수술 후 합병증도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얼굴 근육이 떨린다면 ‘반측성 안면경련증’ 의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 근육이 간헐적 또는 돌발적으로 수축하면서 떨리는 증상을 반측성 안면경련증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근육의 움직임과 연관된 특정 신경이 혈관이나 종양 등에 압박받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방법과 치료법이 삼차신경통과 유사합니다. 눈이 감기면서 입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는 “반측성 안면경련증은 대부분 얼굴 한쪽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할 때, 낮선 사람과 만날 때 심해집니다. 잠을 잘 때도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눈에서 시작된 이 증상의 영향으로 눈이 감기면서 동시에 입이 위로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주로 40세 이후에서 발생하며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4배 많이 나타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글 / 노진섭 no@sisajournal.com 시사저널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